

제2회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 동원인성교육집담회

제2회

동원 인성교육 집담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에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인성교육을 주제로 한 집담회를 연속간사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디 귀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 집담회에 동참하여 많은 의견을 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5년 6월 2일(화요일) 오후 2시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121호

발표자 이용태 (박약회 회장, 퇴계학연구원 이사장)

제목

도덕사회 구현 - 이렇게 하면 된다.

세 가지 실험에 대한 보고

주요내용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과 도구를 모른다. 저자는 누구나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만들었다. 이것은 콜럼부스의 달걀과 같은 것이다. 이 방법이 유효하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그 방법을 요약하고, 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급하느냐이다. 이번 모임에서는 석학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믿고, 배려하여, 명랑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 집담회의 참석을 원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참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 [기술지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후원] 동원 옥영재단
 [문의처] ☎ 880-9019, e-mail : hyejin81@snu.ac.kr (명예교수협의회 간사 박혜진)



<제 2회 서울대명예교수협의회 동원인성교육집담회 요약>

2015년 6월 2일(화)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제2회 서울대명예교수협의회 인성교육집담회는 지난 제1회에 이은 두 번째 인성교육집담회다. 주제발표를 맡은 퇴계학연구원 이용태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학교와 군대 및 지역사회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해온 현장교육전문가로서 실제적인 인성교육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어 이인규 명예교수협의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명예교수들이 이용태 이사장의 인성교육방법에 대한 평가와 소견을 피력하였고 일반적인 인성에 관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제시하였다. 지난 제 1회 인성교육집담회가 인성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을 짚어주었다면 본 2회 인성교육집담회는 실제적인 인성교육 방법론을 들여다봤다는데 의의가 있다.

일시: 2015년 6월 2일(화) 오후 2시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121호

주제발표: 이용태(퇴계학 연구원 이사장)

발표제목: 도덕사회 구현 - 이렇게 하면 된다(세가지 실험에 대한 보고)

사회: 이인규(서울대명예교수협의회 수석부회장, 자연대)

토론 정리 : 이상준(서울대명예교수협의회 동원인성교육집담회 간사, 오피니언리더 대표)

참석자: 이인규(명예교수, 자연대), 최종태(명예교수, 경영대), 이현복(명예교수, 인문대), 정하우(명예교수, 농생대), 진교훈(명예교수, 사범대), 문창규(명예교수, 약대), 이정인(명예교수, 공대), 류관희(명예교수, 농생대), 이기춘(명예교수, 생활대), 조창섭(명예교수, 사범대), 이정민(명예교수, 인문대), 정지웅(명예교수, 농생대), 최대권(명예교수, 법대), 이천표(명예교수, 사회대), 이흥식(명예교수, 수의대), 임홍빈(명예교수, 인문대), 김병동(명예교수, 농생대), 이장호(명예교수, 사회대), 김제완(명예교수, 자연대), 황경식(명예교수, 인문대), 김경동(명예교수, 사회대), 김광억(명예교수, 사회대), 이소우(명예교수, 간호대), 최차용(명예교수, 공대), 홍성목(명예교수, 공대), 배성동(명예교수, 사회대), 백미숙(직원, 기초교육원), 이상준(인성교육집담회 간사), 박혜진(명예교수협의회 간사), 이지연(명예교수연구실 직원) 이상 30명.



이인규 교수(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 수석부회장)

지난 1회는 진교훈 교수님의 인성교육에 대한 이론적이고 총론적인 주제발표를 듣고 말씀을 나눴다. 오늘 2회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인성교육을 실행하고 계시는 이용태 회장님의 주제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이용태 회장(퇴계학연구원 이사장)

<주제발표>

황경식(서울대 명예교수 철학과) 교수의 正義論과 德倫理을 먼저 소개하겠다.

"지금부터의 인성교육은 단지 지식을 머리로만 배우는 學이 아니라 반복해서 우리생활 속에 익히고 젖어드는 習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지식이 나의 가슴과 몸에 각인되고 진정 내 것이 되고 나의 실행력이자 삶의 기술 즉 덕의 수준에 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 말씀처럼 인성은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윤리도덕을 아무리 가르쳐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하고 있는 국민운동의 요체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는 습관기르기 운동이다

둘째는 어떻게 습관을 길러줄 것인가

셋째는 어떤 습관을 길러줄 것인가

이를 위해 여러 윤리적 도덕적 덕목들 복잡하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가 우선되어야한다.

첫째 다른 사람에 대해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둘째 자신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인성교육의 핵심요체이다.

박약회의 인성교육은 2005년에 시작되어 지금 150명의 퇴직교장들에 의해

서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민운동으로 수강자는 누계 40만 명이 넘었으며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수강생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서 수강생들이 만족하고 있다.

기존 인성교육의 문제점:

학교에서는 바른 생활, 도덕, 윤리를 주 1, 2 시간 수업을 하는데 국어처럼 가르치는 주입식 지식교육이 되고 있다. 가족, 마을 등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보고배울 기회가 매우 적으며 가정에서는 지식교육에 비해서 인성교육의 비중이 낮다. 부모들은 일류대학에 보내는 방법은 알고 있으나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인성교육은 무엇보다 습관이 되어야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의 첫 단계는 목표가 간단명료해야 한다. 방법이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 어렵고 재미없으면 안 된다. 인성교육의 세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배려 => 사람을 대하면 항상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본다. (易地思之)
2. 행복 => 어떤 경우라도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恒常幸福)
3. 보탬 => 조금이라도 세상의 짐이 되지 말고 보탬이 된다. (自進行善)

방법론 : 교훈은 백 번 들어도 소용이 없다. 습관이 되어야 한다. 습관이 되려면 10만 번 반복해서 외어야 한다.

(1) 군대에서의 인성교육(*붉은 글씨로 된 이 군대에서의 인성교육내용은 이 용태 회장님의 삭제요청으로 공식적으로 퍼블리쉬될 때는 삭제될 것입니다.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30 사단장이 "병사들이 군대있는 동안 사람 만들어 내보내야겠다. 1개 대대 500명을 6개월 동안 먼저 실험해보자."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행되었다. 한 내무반에는 24명이 있다. 저녁 9시에 내무반에 9명이 둘러앉아 처음 3개월 동안 "행복하다."만 반복해서 말하고 다음 3개월 동안 "역지사지!"만 우선 가르쳤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교재에서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를 같이 읽고 행복해야 된다는 이유를 느낀다.
- 2) 읽었던 감동적인 얘기를 둘러가면서 같이 얘기해서 얘기를 외우게 한다.
- 3) 이야기 읽은 소감을 서로 말한다. 이 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며 친해지기도 한다.

4) 구체적인 실천방안- 나는 이제 행복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도록 리드한다. “행복하다”, “행복하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도록 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샤워할 때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하고 외치면서 하겠다고 하고 난 행군하면서 힘들었는데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행복하다, 행복하다”하고 외울 것이라고 각자 나름대로 행복하다를 반복하게 시킨다.

5) 그 실천한 것을 써낸다.

결국 10만 번 행복하다를 반복해서 외치게 된다. 경례할 때 마다 “필승! 행복하다!”라고 외치고 체조할 때도 “행복하다, 행복하다”를 구호로 하고 행군할 때마다 “행! 복! 하! 다!” 구호를 외친다. 3개월 동안 100가지 행복하다를 실천하는 행동을 한다.

지금 5개월 되었는데 처음엔 뭘 이런 것을 시키나 귀찮아했지만 지금은 진짜로 행복해진 것 같다고 하고 사병들끼리도 친해진 것 같다고 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본 프로그램을 진행할 내무반 리더가 훈련 받은 정도에 따라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서 리더를 집중적으로 잘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2)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실시방안

10년 전 처음 실시할 때 미미했다. 사람들이 안모였다. 그런데 정년퇴임한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강의했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한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길 "40년간 교직에 있을 때 저 아이들을 사람 만들어 내보내야 하겠는데 하며 아쉬웠다. 그런데 (내 인성교육방법을 을 배운 후) 저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뭐한 거지?"하고 자발적으로 전국 인성교육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9만 명 넘게 교육을 받았다. 자율적으로 강사들도 생겨서 스타강사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원의 예산도 배정되어 강사들에게 한 번 강의할 때마다 강사료 10만원씩을 주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이렇다.

일년 동안에 한 가지 습관을 기를 것을 목표로

국어 영어 역사 사회 교과에서는 - 이야기 읽기 - 소감말하기 - 실천 약속하기 등을 실시하고 체육 음악 등 교과에서는 시간 마다 교훈을 반복 제창한다.

즉 다음의 네 가지를 실행한다.

- 1) 습관 가르치기.
- 2) 간단하고 쉬운 것 몇 가지만 하게 한다.

- 3) 반복한다.
- 4)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도록 유도한다.

문제는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아놓고 집에 가서 안한다는 것이다. 반복이 되어야 습관이 될 텐데 이것이 가장 큰 과제다. 해운대의 한 교육청장은 1년 동안 이 사업을 교육청의 목표로 정해서 아이들에게 집에서 숙제로 내주고 있다. 1년 동안 했더니 효과가 나타나서 어머니들의 감동적인 수기를 모은 책까지 나왔다. 하지만 아직 많은 교육업계 관계자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다가 교육일선현장의 교사들은 잡무가 너무 많아서 안 하려고 한다. 지금과 같은 교직상황에서는 인성교육을 시키겠다고 나서는 일선 교사들이 엄청난 애국심과 사명감 없으면 안 된다. 현재 서울의 학교 2 군데서 실험 중이다. 숙제와 시험이 없는 자율학기제 실시하는 몇 개 학교에서 이 인성교육을 도입해보고 있다.

(3) 농촌에서의 인성교육

농촌은 지금 고령화되어 활력도 없고 기력도 없다.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 만들기 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퇴계선생의 고향이신 안동 내리에서 먼저 해봤다. 처음에는 할매 할배들이 안 나올 거라고 부정적이었지만 의외로 아주 좋아한다.

1주일에 2일은 유행가 가르칠 때 “행복하다 행복하다” 가사로 바꿔서 부르고 또 며칠은 에어로빅 선생을 불러다가 에어로빅 하면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가사로 바꿔 주로 운동을 했다. 지금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할매 할배들이 행복해진 것 같다고도 하고 몸이 말을 잘 듣기 시작했다고 좋아한다.

결론적으로 이 운동의 성공을 낙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돈과 시간이 별로 안 든다. 1주일에 한 시간 심지어 한 달에 한 시간이라도 좋다.
- 2) 재미있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 3) 건강에 좋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인성집담회에 바라는 것은 서울대학교라는 엄청난 브랜드를 활용하여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데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란다.

예를 들어 ‘서울대명예교수 인성교육추진단’을 만들면 사회적으로 큰 주목

을 받을 것이다.

이인규(수석부회장)

지난 1차와는 달리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발표**라고 생각한다.



황경식(명예교수 인문대 철학과)

“인성은 몸에 체화되어야 실행할 수 있다고 본다. 가정에서 한 달에 한 가지 덕목을 가훈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생각해봤다.”

나는 윤리학을 40년 동안 가르쳤다. 세상이 어지러운데 당신 윤리학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농담반 진담반 압력을 지인들로부터 받고 있다. 세월호 사건이 인성교육에 대한 커다란 모멘텀이 되었다고 본다. 나라고 저 세월호 선장과 다를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다. 선장은 위기상황에서 매뉴얼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어찌 그리 도망갔을까? 그것은 매뉴얼이 몸에 체화되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인성은 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꾸 반복하다가 보면 기술로 몸에 익혀진다고 본다. 그것이 덕이고 이것이 바로 덕윤리다.

나의 덕윤리의 실행 장소는 가정이다. 즉 밥상머리 인성교육이다. 그리고 가훈을 통한 인성교육을 제시했다. 한 달에 하나씩 즉 이번 달엔 정직 다음 달엔 친절 등 1년 동안 12개의 가훈을 실천하는 방식을 생각해봤다.

조창섭(명예교수 사범대 독어교육과)

“이용태 회장님의 실천적 인성교육은 마음뿐 아니라 몸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우리의 선비정신과도 맥이 닿는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학문적으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되어야 한다고 본다. 남명 조식 선생이 퇴계선생에게 보낸 서신을 소개하겠다.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 물 뿌리고 빗자루질하는 절도도 모



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말하여 헛된 이름이나
 흠쳐서 남들을 속이려 합니다. ...선생 같은 어른
 이 꾸짖어 그만두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심분 억제하고 타이르심이 어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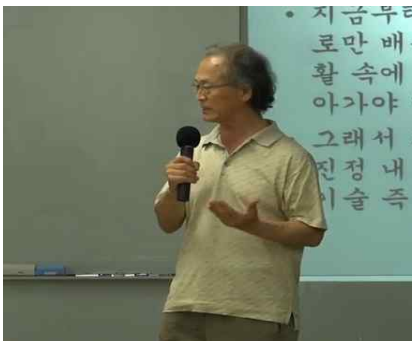
인성교육은 품성 교육이다. 몸을 지배하는 것
 이 마음이라 해서 마음이 잘못된 것만 고치려드
 는 것은 서구적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선비정신은 몸과 마음 모두를 바르게
 하는 것에서 모든 학문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용태 회장님의 몸
 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이를 우리
 명예교수협의회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봤으
 면 좋겠다.



김광익(명예교수 사회대 인류학과)

“인성교육이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
 다.”

나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다. 이제 전국적으로
 인성교육이 본격화될 텐데 오늘날 맹모삼천지교
 의 맹자가 맹렬할 맹자가 되고 삼천이 돈 삼천의
 의미로 변질되는 현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인
 성교육이 가능할 것인가가 고민스럽다. 경쟁이
 치열한 교육 분야에서 진정한 인성교육이 아니라 사교육 과열경쟁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최차용(명예교수 공대 화학생물공학부)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을 가진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원인 분석이 먼저다.”

어린 학생들의 인성이 문제가 된 원인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조 오백년 동안 퇴계 선생
 같은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이

정도의 모습 밖에 보이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점부터 잘 들여다봐야 한다. 아이들만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본질적인
원인 분석과 연구가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이인규(수석부회장)

“우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내부적으로 전통 가치관과 새로운 현대적
가치관의 융화 문제에 대해 정리해보자.”

시니어들의 시각에선 전통적 가치관이 훼손되었으니까 이것을 인성차원에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
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과연 전통 가치관의 복원만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통적 가치관과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가치
관을 융화시키는 접점은 없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검토해볼 것이다. 그래서
우선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보자는
것이 이 집담회의 개최 의미다.



정지웅(명예교수 농생대 농경제사회학부)

“할아버지까지 3대가 함께하는 유대인의 쉼
교육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가 오늘 놀란 것 두 가지는 첫째 서울대학
교 명예교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인성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용태 회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었
다는 점이다. 미처 몰랐던 사실들이다.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 교육이다.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삼대가
같이 하는 인성교육이다. 이것은 유대인의 종교요 문화다. 기독교적인 차원
에서 들여다보니까 유대인들이 서기 70년에 나라가 없어지고 1948년에 나
라를 다시 세웠다. 이렇게 2천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서 전통을 유지한 원동
력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가정교육이라고 본다. 할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가르치는 교육, 삼대가 함께하는 교육이다. 특히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꼭 믿으라는 종교적인 부분만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자식을 제대

로 못 가르치려면 죽여라'라고 할 정도다. 요즘 기독교 계통에서도 이 쉐마 (the Shema)라는 이름의 교육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손들 인성교육을 잘 가르쳤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다행히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고 하니 모두들 협조하여 힘을 모아보자.



최대권(명예교수 법대 법학부)

“우리가 사회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인성교육이 실제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쥐가 생각났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문제 말이다. 즉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는 것들이 생쥐들만의 토론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된다. 우리들은 학자이고 사회를 실제 움직이는 정치권력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쥐고 있는데 그 분들이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용태(주제발표자)

“서울대 입시와 대기업 입사에 인성점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인성문제 해결된다.

이 인성교육프로그램대로 나도 행복하다고 씩 없이 반복했더니 나 자신이 행복해졌다.“

서울대학교를 입학할 때 인성교육 점수를 매겨주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인성점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문제만 잘 해결하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전경련에서 주도하여 신입사원 채용할 때 인성을 평가하면 될 것이다. 이것들이 바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산을 배정해서 인성 점수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각 분야 전문가들을 대규모로 동원해서 연구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서울대 입학시험에 이것을 적용하면 게임이 끝난다고 생각한다.

내가 1932년생인데 10년 전부터 인성교육을 해오면서 가장 혜택을 받은 것이 바로 나다. 내가 10년 전에 비해 훨씬 좋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들의

머릿속엔 잡생각이 가득 차있다. 평소에 우리머리는 쓸데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잠재의식이 97퍼센트 점령하고 있고 의식적인 쓸모 있는 생각은 3퍼센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쓸모 있는 생각을 더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 ‘행복하다 행복하다’라고 평소에 반복함으로써 쓸데없는 생각 다 지워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머릿속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이고 명상이다. 과거 일을 생각하며 고통 받지 말고 현재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한 현재가 지속되는 것이다. 나는 가능하면 잡생각이 머릿속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행복하다 행복하다’ 생각했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진짜로 행복해졌다. 내가 허리가 아파서 1년 반을 책상에 누워서 일을 했고 다리가 아파서 계단을 못 올라갔었다. 그런데 인성 교육을 시작한 다음부터 허리가 편하다는 걸 ‘행복하다’ 생각하자 다리가 다 나아서 계단을 올라갈 때도 ‘행복하다 행복하다’했더니 아프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렸다.

과거 내가 나스닥에 삼보컴퓨터와 두루넷을 상장시켰을 때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와 엘지전자를 합친 것만큼 큰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두 달 지나니 다 잊어버렸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 골치 아픈 일 생기면 그거 때문에 괴롭고 그랬지 내가 수천억 부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행복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할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자신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침에서 일어나서부터 모든 일상생활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정민(명예교수 인문대 언어학과)

언어학에서는 동일한 용어를 반복하는 것을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피한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동일한 것을 반복하지 않고 재미있게 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정민 (명예교수 공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내 수준에서 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인성교육은 두 가지다. 전세계 대학의 교훈을 서예로 써서 선물하는 것과 나의 전공분야인 공과분야서 인성교육을 접목하는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부담 없이 즐기면서 인성을 교육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 한 예로 서예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 전세계의 대학에는 교훈들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동북대의 교훈이 자강불식(自強不息;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닦는다) 지행합일(知行合一; 참 지식은 반드시 실행이 따라야한다)이다. 이렇게 좋은 전세계 좋은 대학들의 수백 개 교훈을 써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또 하나는 에너지 자원공학과라는 내가 잘 아는 전공 안에서 인성교육을 해보려고 한다. 공과분야에서 인성교육을 적용할 대목들을 살펴보면 댓글 같은 인터넷 윤리도 있고 터널과 지하자원 설비 같은 설계시공공사를 하는데 있어서의 윤리들이 있다. 이런 곳에 인성교육을 적용할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있다.



김병동(명예교수 농생대 식물생산과학부)

과학기술한림원이 고교들에 과학/인문교육을 명예교수들을 강사로 파견하여 강연하고 있는데 이 과학과 인문교육에 덧붙여서 인성교육도 한번 시도할만하다.

황경식(명예교수 인문대 철학과)

“조선조 5백년을 선비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설사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인성교육은 추진되어야 한다. 불행 신드롬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이용태 회장님의

행복 메시지를 강조하는 인성교육은 의미가 있다.”

인성교육 무용론이 있다. 조선조 유학자들의 학문적 업적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렇게 조선조 5백년 동안 선비들이 모범을 보이고 인성에 대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 모습을 유지하고 발전한 것이라고 본다. 만일 과거 우리사회가 선비들이 아니라 무사들이 지배했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 보다 더 나아졌을 것이라 보지 않는다.

또 인성교육의 부작용도 거론되었다. 예를 들어 입시와 입사에 인성을 평가하게 되면 인성점수화 등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이다. 하지만 어떤 교육이든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 그럼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빛을 봐야한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하고부터 우리 사회에 논술 열풍이 불었다. 이 논술고사가 우리사회에 논술이라는 임팩트를 줘서 오늘날 논술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 우리 사회가 업그레이드되었다.

다만 오늘날의 현실에 맞는 인성교육방법론을 연구해야 한다. 과거처럼 사서삼경을 외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용태 회장님의 인성교육방법은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들 피곤하고 불행하다. 그런 측면에서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창하는 이회장님의 인성교육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무튼 인성교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소우(명예교수 간호대 간호학과)

이용태 회장님께 궁금한 것은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 국민성 그리고 조직적 특성을 간과하지 않고 어떻게 교육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것인지 궁금하다. 내 손주들의 경우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을 참 잘 받았다. 한국 아이들에 비해 양반이다. 그게 국민성인지 원지 궁금하다.

이용태(주제발표자)

지금까지 설명한 행복하다와 역지사지를 외치는 것은 초기 입문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

첫째는 1-3-10이다. 그 뜻은 다음과 같다.

1 : 인생의 목표(정하라)

3 : 남(남과의 관계)-나(나에 관한 태도) - 일(일에 대한 태도)

10 : 남-나-일에 대한 각각의 3가지씩 일들을 총 열 가지 일을 실행한다.

둘째는 1-1-6이다.

군인들은 - 하루에 한 번씩 여섯 번

가정에선 - 일주일에 한 가지 교훈을 여섯 단계로 하라는 의미다.

1-1-6

1. 이야기를 읽는다
2. 이야기를 외운다
3. 소감을 말한다. (자기 경험도 발표)
4. 교훈을 찾는다, 반복한다, 반복한다
5. 실천 할 일을 정한다
6. 실천한 내용을 기록해서 다음 시간에 발표한다

나의 인생현장

남	남의 입장에 서서 밝은 표정으로 신의를 지키라
나	어려움의 극복 행복한 마음 반듯한 사람
일	열정적 창의적 중요한 것 중요하게
효도	효도는 반드시

[제2회 인성교육집담회 주제발표 및 토론 요약]

사회를 맡은 **이인규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 수석부회장(자연대)**은 지난 제1회 인성교육집담회는 인성교육에 대한 이론적이고 총론적인 주제였고 오늘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인성교육에 대해 토론해보자는 말로 집담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용태 회장(퇴계학연구원)**은 ‘인성은 습관’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발표를 시작했다.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성교육은 도덕 지식의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대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직접 시행한 바 있는 인성교육을 소개했다.

먼저 군대에서는 병사들에게 처음 3개월 동안 경례할 때, 행군할 때, 체조할 때 등 틈나는 대로 "행복하다."만 반복해서 외치게 했다. 그랬더니 ‘처음엔 뭘 이런 걸 시키나 귀찮아하던 병사들이 진짜로 행복해진 것 같다’며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일 년 동안 한 가지 습관을 기를 것을 목표로 하여 가정에서 매달 한 시간씩 가족들이 모여앉아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씩 읽은 후 한 달 동안 그 교훈을 몸으로 실천하도록 시켰다. 그렇게 1년을 했더니 효과가 나타나서 어머니들의 감동적인 수기를 모은 책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농촌에서는 1주일에 2일은 유행가 가르칠 때 행복 하다 행복 하다 가사로 바꿔서 부르고 또 며칠은 에어로빅 선생 불러다가 에어로빅 하면서 행복 하다 행복 하다 가사로 바꿔 부르게 했다. 지금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행복해진 것 같다고도 하고 몸이 말을 잘 듣기 시작한다며 좋아한다며 주제발표를 마쳤다.

곧바로 서울대 명예교수들의 의견 피력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황경식 명예교수(인문대 철학과)**는 인성은 몸에 체화되어야 실행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자신의 이론과 이용태 회장의 인성교육이 일맥상통한다며 이 회장의 인성교육에 적극 지지를 표한 후 인성교육의 한 가지 방법으로 가정에서 한 달에 한 가지 덕목을 가훈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조창섭 명예교수(사범대 독어교육과) 또한 이용태 회장의 실천적 인성교육은 마음뿐 아니라 몸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우리의 선비정

신과도 맥이 닿는다며 적극 찬성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광억 명예교수(사회대 인류학과)**는 그동안의 교육들이 비정상적인 사교육 열풍으로 왜곡되었음을 지적하며 인성교육 또한 일그러진 사교육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을 제시했다.

최차용 명예교수(공대 화학생물공학부)는 지금 우리 사회 인성이 심각하게 추락한 원인 분석이 먼저 되어야 한다면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을 가진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지웅 명예교수(농생대 농경제사회학부)는 이용태 회장의 실제적인 인성교육도 좋지만 할아버지까지 3대가 함께하는 유대인의 쉼마 교육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권 명예교수(법대 법학부)는 우리 서울대명예교수들이 사회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인성교육이 실제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용태 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서울대 입시와 대기업 입사에 인성 점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인성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단언한 후 자신이 실시한 이 인성교육프로그램대로 나도 행복하다고 씬 없이 반복했더니 자신이 행복해졌다는 체험담을 전했다.

이정인 명예교수(공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는 자신의 수준에서 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인성교육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전세계 대학의 교훈을 서예로 써서 선물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신의 전공분야인 공과분야서 인성교육을 접목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황경식 명예교수(인문대 철학과)**는 훌륭한 전통을 가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인성이 추락했는가 하고 제기된 의문에 대해 조선조 5백년을 선비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설사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인성교육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불행 신드롬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이용태 회장님의 행복 메시지를 강조하는 인성교육은 의미가 있다며 이 회장의 실제적인 인성교육에 대해 적극 지지 의사를 표했다.

9월로 예정되어있는 제3회를 기약하며 제2회 인성교육집담회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